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적 관계

이 국 진(명지대 박사수료) · 정 가 윤(명지대 교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동참되는 사회적 관계를 탐색하고,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사회적 관계를 모색하므로 부모기에 필요한 양육지원체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혼이주 여성은 결혼이주로 자국에서의 사회적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이민아, 2010) 동시에 부모기라는 생애 전환을 통해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사회적 관계는 부모로서 양육경험과 지식의 공유, 실천 과정을 펼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 복합형태이면서 도시접근이 용이한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두고 양육을 주로 전담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중국(한족)출신 3명과 베트남 출신 3명으로 총 6명이다. 연구자는 질적연구자로서 현장 들어가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주 1회를 방문하여 한국어교실에 참여하는 엄마들의 자녀를 공동육아실에서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과 가까워졌고 6명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의 제안에 동의한 자들이다. 자료의 수집은 2013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졌고, 주요자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반구조화된 심층면담 각 2회분이다. 그 외에 자조모임과 친목모임의 참여관찰, 가정방문을 통한 관찰일지, 연구자의 연구일지 그리고 여성들의 독후감상문 및 육아일기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로 연구참여자들이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문화기술적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적 관계는 자국민과의 관계로 편향되어 있었다. 남편과 시가족, 자조모임, 친목모임, 친정엄마, 모국출신 산모도우미, 다국적교회모임, 방문지도사, 정보통신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갈래로 나타났으나 한국인과의 관계는 연구참여자의 남편과 시가족 외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었다.

둘째, 양육의 지지적 교류를 위해 자국민과의 소규모 친목모임과 공식적 자조모임에 강한 친밀감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양육정보와 품앗이의 광장이었고 또 자신의 모국어를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였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원정 지원군으로 자국의 음식, 언어, 양육경험을 함께 나누며 한국사회로의 빠른 동화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유연하게 저항하는 소수민족의 힘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결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갈래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자국민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기 자녀가 성장해서 학령기가 되는 시기와 함께 학부모가 되는 결혼이주여성을 염두 한다면 한국인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균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위해 결혼이주가족과 한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 통합프로그램 개발과 가족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의 방향에 있어 외국인 부모와 한국인 부모로서 혼재된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친정어머니가 향후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사회 통합으로의 긍정적인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친정어머니 방문동거(F1)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자 연장을 위한 결혼이주가족들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 요구된다.